

어둠이 주변을 둘러싸는 저녁 무렵 종종 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다 문득 어느 제과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안에서 흘러나온 환한 불빛이 추위때문에 움츠러진 몸을 잠시지만 펴게 만든다. 제과점 안에서는 한 청년과 아주머니가 커피한잔을 앞에 놓고 정답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의 밝은 웃음이 이내 이 앞을 무심코 지나치는 행인의 마음을 풀어놓는다. 하루의 긴장이 일시에 풀리면서 나른해진다. 이제 행인은 엿보기를 멈추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따뜻한 이불이 깔린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이 앞을 지나가던 손님이 빵을 사기위해 제과점에 들어와 가끔씩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공장장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모자간(母子間)이냐고 묻습니다. 둘이 얼굴도 닮고 하도 다정해서 엄마와 아들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제과점 사장인 유방자 씨의 설명이다. 유방자 씨가 현재의 공장장인 남정우 씨를 만난 것은 87년이다. 벌써 9년전 일이다. 옛날 얼굴의 총각이

이제는 장가갈 나이를 놓쳐 버린 서른 세살 ‘노총각’ 이 됐다. ‘아니, 벌써!’ 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말인가 보다.

스물네살에 제과점 들어와 이제는 장가갈 나이도 넘을 만큼 세월 흘러

남정우 씨가 제과와 인연을 맺은 것은 12년 전이다. 중앙동 어느 제과점에서 처음 기술을 배웠고 그곳에서 2년을 있다가 을지로에 있는 제과점으로 옮겨 1년동안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이곳으로 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제 위에 공장장과 부공장장, 보조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 기술자였는데 흔히 주단빠라고 불리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탄광촌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내 그곳을 떠났다. 처음에는 구미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기술을 배웠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시계공장에 다녔다. 어렸을 때는 우선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소개해

주는 직장을 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차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서 자신의 인생설계도 하게 됐다.

“시계공장을 다니면서 노는 날이면 개인적으로 이것 저것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음식점이나 분식점에서 기술을 배워볼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사회에서 자립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과기술학원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 제과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제과기술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근성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이곳에 있으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다.

그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몽블랑제과점은 3명이 일하는 제법 큰 규모였다. 그런데 93년도에 현재의 건물주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상가로 임대한 것이 밝혀져 부득이 제과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단골손님도 많이 줄었고 데리고 있던

이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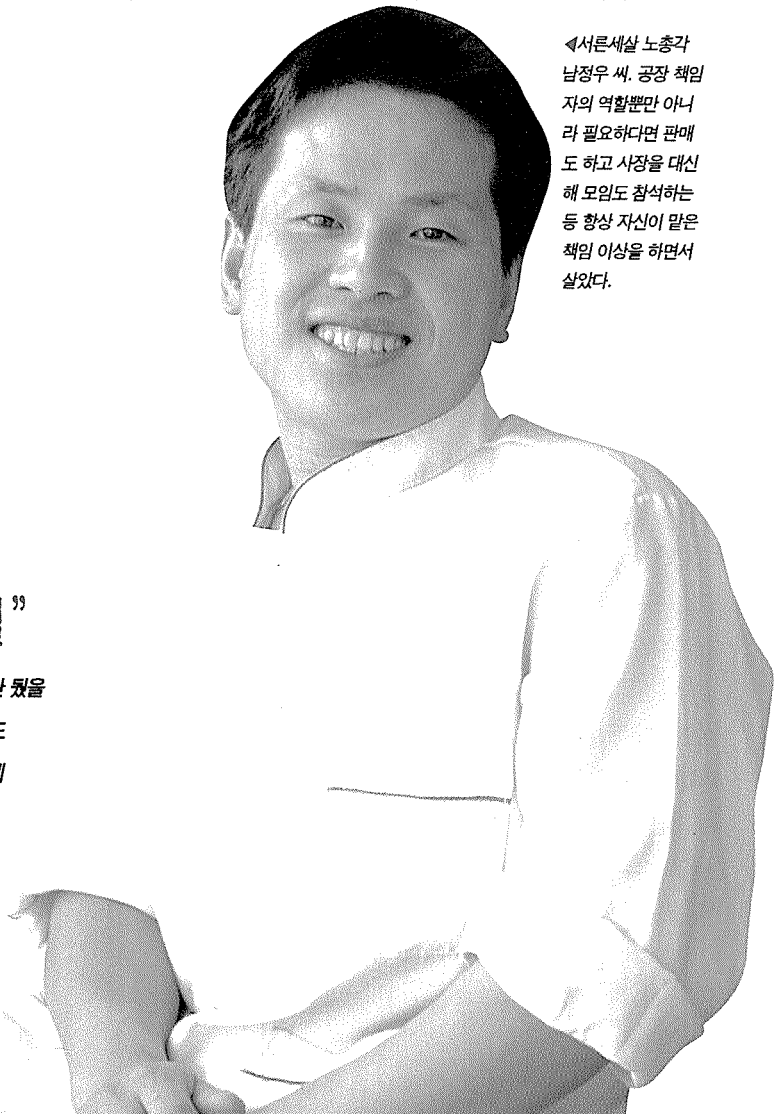
9년 세월을 엄마와 아들같은 관계로 이어온 몽블랑제과점

남정우

“서로를 이해하고 흥어물없이 지낸 것이 비결”

유방자 씨는 만약 지금의 공장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은 일찌감치 제과점을 그만 뒀을 것이라고 한다. 남정우 씨가 9년동안 자신의 제과점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자신도 제과점을 할 수 있었다며 그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남정우 씨와 유방자 씨는 이제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다. 이들은 가족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흥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서른세살 노총각 남정우 씨. 공장 책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판매도 하고 사장을 대신해 모임도 참석하는 등 항상 자신이 맡은 책임 이상을 하면서 살았다.



기술자도 내보내고 혼자서 공장을 책임지게 됐다. 그래서 옛날 단골손님 중에는 한번씩 이곳에 들리면 꼭 묻는 말이 있다. “여기 몽블랑제과점 맞나요.”

손님이 많이 들락거리던 때에 비하면 그의 의욕도 한풀 꺾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제과점에 와서 일하라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유방자 씨와 쌓은 정때문에 눌러앉았다.

유방자 씨와 남정우 씨는 정말 모자간 같다. 유방자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정우 씨를 ‘우리아들’이라고 소개한다. 남정우 씨도 엄마, 아줌마라고 호칭을 번갈아가며 쓴다. 유방자 씨는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남정우 씨를 항상 초대하고 그도 기꺼이 그 일에 기쁨마음으로 참여한다. 또 고민이 있으면 서로 터놓고 의논을 하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서로의 대상이 돼준다.

“일이 끝나면 함께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막내딸이 우리 공장장과 동갑인데 어쩔때면 친자식보다도 그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자식을 보다 더 많은 얘기를 공장장과 하기 때문이겠지요.” 유방자 씨의 얘기가.

그녀는 14년동안 자신이 제과점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남정우 씨가 오랫동안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인정한다. 사실 여자힘으로 혼자서 제과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않다. 그냥 빵을 만들어서 파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녀가 없을 때는 남정우 씨가 매장에서 판매도 한다. 또 지역 제과점주 모임이 있으면 그녀를 대신해 참석하고 새로운 정보도 알아온다. 그밖에도 장사를 하면서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문제 등 필요하다면 여자인 그녀를 대신한다.

모자같은 사이로 서로 어려운 일 도와가며 9년동안 동거동락

남정우 씨는 손이 빠르다. 혼자서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정도면 필요한 제품을 모두 채워 놓는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의 유일한 취미인 등산을 즐기기 위해 관악산을 오르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이



▲유방자 씨와 남정우 씨는 모자간 같다. 그녀는 남정우 씨를 친아들 이상으로 아낀다.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꼭 초대하고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면 아들같은 남정우 씨에게 의논한다.

▶한 제과점에 오래 있다보면 전체적인 제과기술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앞설때가 많다. 그는 주로 모임에 나가서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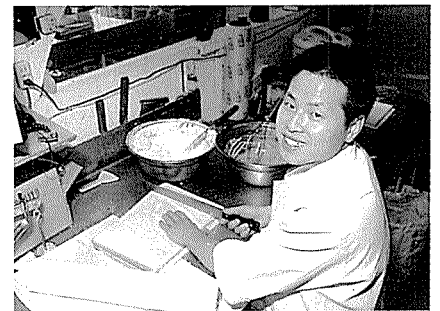
옷에 있는 제과점에 놀러가 좋은 제품이 있으면 배워온다.

‘성실’이 유일한 그의 무기다. 그는 이곳에 9년동안 근무하면서 한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명절에 집에 가거나 개인적인 불일을 볼 때면 항상 저에게 언제 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한번도 그 날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공장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면 자신이 오는 날짜를 계산해 필요한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갑니다. 공장장 덕분에 제가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죠. 또 그의 능력만큼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데도 한번도 더 달라져나 적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제과점에 오래있다 보니 남정우 씨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다. 새로운 기술 습득이 늦다는 것이다. 모임에 나가서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근방에 있는 제과점에 찾아가 이것저것을 배우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변화는 못따라간다.

“제과점을 자주 옮기면 기술을 빨리,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을 생각하면 쉽게 가겠다는 말이 안떨어집니다. 마음 약해서 손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 만나 사귀고 흥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질 처지다. 유방자 씨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제과점을 경영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요즘 남정우 씨와 헤어지는 것을 기쁘게 상상도 해보지만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녀는 한가지 욕심이 있다. 떠나 보내기 전에 꼭 장가를 보내는 것이다.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 부모의 등지를 떠나는 자식을 보내듯이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보내고 싶지만 잘될지는 모르겠단다.

인연이란 이런 것인가보다.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만남을 부모자식 이상의 끈끈한 정으로 엮은 두사람은 마냥 행복해 보였다. ☐

〈글/김주희〉

☐ 장기근속자를 찾습니다

본지에서는 한 직장에서 한결같은 자세로 평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제과인을 찾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원도우베이커리에 근무하는 제과인 중에 소개할 분이 있으면 본지 독자엽서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